

명백히 밝혀진 김순호 경찰국장의 프락치 전력,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해체하고 국민께 사죄하라!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프락치’ 전력이 밝혀졌다. 김순호 국장은 1983년부터 침투망원(프락치)으로서 대학 서클 동향을 군사정권에 보고하고,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의 노동운동 활동가들을 밀고하여 그 대가로 1989년 경찰에 특채로 채용되었다.

김순호 국장은 “인노회에서 주사파 활동을 하다가 자수” 했고, “주사파 전문성을 인정받아 특채되었다.” 라며 동료 밀고는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김 경찰국장의 변명은 황당함을 넘어 해괴망측하기까지 하다. 주사파 활동을 한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경찰에 특채될 수 있는가? 인노회 사건으로 15명이 구속되었는데, 조직의 책임자인 김순호 국장은 자수 하나만으로 구속을 면하고 경찰 특채가 가능한 일인가?

김 경찰국장의 급조된 변명은 시간조차도 맞지 않는다. 김순호 국장은 1989년 7월에 자수했다고 말했다. 치안본부는 1989년 2월부터 인노회 회원들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였고 같은 해 6월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 국장의 해명은 수사가 끝나고서야 자수했다는 말이 된다. 당시 고초를 겪은 이들은 치안본부에서 A3용지의 인노회 전체 조직도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인노회 동료 대다수가 붙잡혔는데 정작 조직책임자인 김순호 국장은 치안본부가 수사한 흔적이 없다.

결정적으로 인노회 사건 책임자이자 김 국장을 특채한 것으로 알려진 홍승상 전 경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 사람(김순호 국장)한테 많이 도움을 받았다. 대표적인 사건이 인노회 사건이다” 라고 언론에 인터뷰했다. 자신을 경찰에 채용시킨 이조차도 인정한 김순호 국장의 ‘밀고’ 전력이다.

또한 대법원이 인노회는 주사파가 아님을 확정했음에도(2020년), 자기가 활동한 인노회는 주사파였다고 망언에 가까운 논리를 펼치고 있다. 본인을 친동생처럼 아껴준 최동 열사는 인노회 사건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경찰국장의 권력 욕심 때문에 한때 자신의 동료였던 인노회 사건 피해자들을 두 번 희생시키고 있다.

김순호 국장의 침투망원 전력과 거짓 해명이 드러났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윤희근 경찰총장과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끝까지 “몰랐다”며 발뺌하고 있다. 정말로 몰랐다면 윤석열 정권의 인사시스템이 총체적 붕괴 상태임을 자인하는 것이고, 이미 알고 있었다면 경찰국 신설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통제 목적임을 증명하는 것임과 함께 국민께 뻔뻔한 거짓말을 둘러댄 것이다.

우리는 지금 ‘박종철 열사 사건’의 치안본부 관계자 홍승상이 천거한 노태우 정권 프락치가, 동료를 밀고한 대가로 승승장구해 결국 초대 경찰국장이 되는 시대를 목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장악, 권력 사유화 욕심에 공정과 정의는 무너지고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유가 짓밟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는 김순호 경찰국장의 침투망원 전력에 희생당한 이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며, 윤석열 정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김순호 국장은 과거 행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본인의 프락치 활동에 고초를 당하거나 죽어간 희생자들에게 사죄하라.

하나. 이상민 장관은 김순호 국장을 즉각 경질하고, 경찰국 졸속 추진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라.

하나. 정부는 ‘김순호 경찰국장 프락치 의혹’ 과 관계된 보안사 존안자료를 공개하라.

하나. 경찰국의 공안통치 목적이 김순호 국장 임명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을 즉시 해체하라.

하나. 모든 논란의 최종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장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께 사죄하라.

2022년 8월 11일(목)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위원장 한정애)